



미국 3/4분기 GDP 2.0% 증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0월 26일 미 상무부는 3/4분기 GDP가 소비지출과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2/4분기 보다 0.7%p 상승한 연율 2.0%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함.

- 3/4분기 민간소비는 2% 증가했으며, 이는 주택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지출이 연율 14% 증가했기 때문임.
- 정부지출은 국방지출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율 9.6%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.
- 반면, 수출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고 재정절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설비투자자는 1.3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2%의 성장률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됨.

■ 한편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미국 20대 도시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S&P/케이스-실러 지수는 계절조정 0.5%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, 이는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 졌던 2009년에서 2010년 이후 가장 긴 상승 흐름임.
- 주택거래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이 지난 6년간의 침체를 마감하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제기됨.
- 10월 26일 톰슨 로이터/미시건 대학교는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월의 78.3보다 4.3포인트 상승한 82.6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는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임.
- 한편, 10월 29일 미 상무부는 9월 가계소비가 전월대비 0.8%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2012년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임.

(Huffington Post 등, 10/26)